



# 최신 國防技術정보 迅速제공

韓國軍需産業振興會會長

박응환

우리나라는 지난 15년동안 집약된 開發意志와 總和團結으로써 빈곤과 無氣力에서 탈피하여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際列에 참여하기 위한 轉換期에 이르렀습니다.

工業化를 뒷받침한 輸出은 작년에 1百億달러를 돌파하여 世界 17位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모든 部門에서 後進性을 완전히 탈피하고 自立經濟의 完成段階에 到達하여 高度産業社會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輸出增大量 주축으로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豐饒한 福祉社會建設을 더욱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對內的으로 國家의 安全保障을 견고히 하여 北傀의 挑發을 미연에 防止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져진 國力의 기반위에 국민들의 精誠어린 防衛稅와 誠金에 더욱 힘입어 防衛産業分野에서도 괄목할만한 發展을 이루어 基本兵器의 試製開發을 완료하고 量產을 할수 있는 시설과 技術構築이 完成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韓國型中距離誘導彈을 개발, 試射에 성공함으로써 自主國防力強化에 새장을 열었습니다.

이 韓國型誘導彈은 設計로부터 製造試驗에 이르기까지 全過程이 우리 國防科學技術陣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번 試射에서 놀랄만한 性能이 實際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미사일 試射成功으로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7번째로 誘導彈 保有國이 되었으며 우리의 獨自的 武器體系를 이룩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防衛産業이 高度精密科學兵器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立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國產武器가 量產되어 一線에 배치되면 北傀의 어떠한 武器보다도 월등하게 優秀하므로 우리의 戰力增強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國防科學은 日進月步하는 趨勢인만큼 우리는 끊임없는 研究와 技術開發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防衛産業體에서 生産하는 各種兵器의 品質管理에 대한 노력을 더욱 계속하여 보다 優秀한 製品의 生産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國防과 技術”誌는 이러한 精神아래 날로 發展해 가는 世界의 最新 國防科學技術情報를 迅速히 提供하고 또 教育活動에 이바지할 것을 期待하며 알찬 內容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本誌의 발전을 위해 各界各層 人士여러분들의 성원과 贊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